

해외 게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동참 움직임 - 해외 개발사 게임의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 사례 증가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이하 '기구')는 자율규제 준수율이 낮았던 해외 개발사 게임의 아이템 확률 공개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구의 적극적인 자율규제 정착 노력이 해외 개발사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구는 매월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연속 3회 이상 자율규제를 미준수한 게임에 대하여는 언론 공개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수차례 언론에 공개되었음에도 일부 해외 개발사 게임물의 계속되는 자율규제 미준수는 자율규제 실효성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템 획득 확률을 공개하는 해외 개발사 게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율규제 정착의 긍정적인 신호로 다른 해외 게임물의 자율규제 준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구 출범(2018년 11월) 이후 미준수로 공표되었던 '퐁신'을 비롯한 몇몇 해외 개발사 게임들이 아이템 획득 확률을 공개하였고, 자율규제 준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해외 게임 개발사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률형아이템 확률 공개 참여 해외 게임물

GSOK/2019.06.30

게임명	개발사명
야망	Dream of Dragon Games (드림 오브 드래곤 게임즈)
삼국지M	TeamTop Games (팀탑게임즈)
이터널라이트	NetEase Games (넷이즈 게임즈)
왕이되는자	CHUANG COOL ENTERTAINMENT (추앙쿨엔터테인먼트)
대항해의길	NetEase Games (넷이즈 게임즈)
풍신	ULUGAMES (유엘유게임즈)
뮤오리진2	TIANMA (천마시공)
검은강호*	9Splay(나인스플레이)

* '검은강호'의 경우 게임 내 미준수 사항을 수정 중이며 7월 초·중순 완료 예정

해외 게임 개발사의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하여 기구 관계자는 “그동안 미준수로 공표된 다수의 게임이 해외 개발사 게임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구에서는 자율규제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준수 권고, 미준수 사실의 공표와 더불어 자율규제 강령의 외국어 번역본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기구 산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심의 위원회인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황성기 위원장은 “미준수로 공표되었던 해외 게임 개발사까지 적극적으로 자율규제 동참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향후 자율규제 정착과 확산에도 좋은 신호가 될 것”이며, “현재는 자율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과정으로 해외 게임 개발사를 포함 자율규제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